05□□□_□□□□□□15□ 13. 8. 13. □□ 4:31 Page 109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5호 2013.06. pp.109~138

시대상에서 살펴본 소파문학의 형성과정

The formation process of Sofa's literature through the times

신정아(단국대 박사수료)

차 례

1. 서론 – 천도교 사상에 입각한 어린이사랑
2. 시대상과 일본유학의 영향
1) 고래 동화 발굴의 계기
2) 동요 창작 배경
3. 시대상과 작품에 드러난 특성
4. 시대상과 소파의 문학관
5. 결론

1. 서론–천도교 사상에 입각한 어린이사랑

방정환은 한국 근대 아동문학 도입을 위해 힘쓴 선각자이다. 더 면밀히 말하자면 어린이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아동문학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인식되어질 뿐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일반인들은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 정도로 과소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방정환의 생애를 돌이켜보아도 그는 33세라는 짧은 삶 동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일을 했다.

방정환이 몸담았던 천도교는 아동존중사상이 근원에 깔려있으므로, 천도교를 알지 못하면 방정환을 알지 못한다. "도가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을 상하는 것이니라."는 말은, 방정환의 아동교육철학

05□□□_□□□□□□15□ 13. 8. 13. □□ 4:31 Page 110

정립에 일종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방정환이 계대교인으로 손병희의 사위가 된 후 장인과 함께 산 기간은 1917년 4월부터 1919년 3월까지의 불과 2년이다. 이 기간에 그는 천도교인으로서 그의 생애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인간관을 확립한다. 자신의 한울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의 한울님을 존중하고, 특히 소외된 여성과 어린이의 한울님을 섬기는 '시천주'의 평등주의 인간관을 가지게 된다. 그가 열성을 다하여 소년운동을 추진하고《어린이》와《신여성》잡지 만들기에 힘을 쏟은 것은 그들의 한울님을 섬기려는 종교적인 신념이 깔려 있었다.[1)]

그가 남긴 발자취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둡고 참담한 조국의 역사에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어린이 시대를 연 선각자였다는 사실이다. 소파에 의해 어른 중심 사회에 묻혀 있던 우리나라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를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소파 방정환을 기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2)]

이재철은 방정환에 대해 "동심을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계발해 내었으며, 그것은 곧 아동문학이 자리한 본령을 드러내어 확인한 작업"으로 아동문학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3)] 방정환은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문학을 꽃피우고, 시대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가는 것입니다.

---

1) 이상금, 『소파 방정환의 생애 사랑의 선물』, 한림, 2005, 105~106쪽.
2) 이상금, 위의 책, p.10
3) 이재철, 「소파의 생애와 문학」, 『방정환 문학전집10－소파선생이야기』, 문음사, 1981, 103쪽.

05□□□_□□□□□□15□ 13. 8. 13. □□ 4:31 Page 111

소파는 주장한 바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글을 썼다. 그는 동화가 가져야 할 요건으로 첫째, 어린이가 알기 쉽게 써야한다는 것과 둘째, 아동의 마음에 기쁨과 興을 주어야 한다는 것, 끝으로 셋째, 교육적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정환 선행연구자들은 방정환의 어린이 사랑을 토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품분석에 주를 기울였다. 반면 필자는 천도교 사상에 입각한 어린이 사랑을 주제로 시대상과 교육적 효용성에 중점을 둔 작품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시대상과 일본유학의 영향

1918년 당시 방정환은 아직 아동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3 · 1독립운동 후 천도교청년회가 발족하고 개벽사가 설립되고 소년회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그의 관심이 아동문학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아동문학에 주력하게 되는 시기는 1920년 일본유학을 간 이후이다. 소파가 일본에서 본 1920년대 초반의 일본아동문화는 화려하고 찬란했다. 도쿄거리에 풍성하게 넘치는 아동을 위한 책이나 장난감은 소파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충분했다. 한편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잊혀진 채 책도 장난감도 없이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던 차고 어두운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소파는 이러한 낡은 전통을 개혁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4)]

다른 집 아이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당시 소파는 일본 거리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이나

4) 이상금, 앞의 책, 296~299쪽 참고.

05□□□_□□□□□□15□ 13. 8. 13. □□ 4:31 Page 112

장난감을 보고 가장 먼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인형 하나 손에 쥐어보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음으로, 그러한 소파의 마음이 동화번안과 개작에 심혈을 기울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 고래 동화 발굴의 계기

방정환은 1922년 개벽사에서 주최한 '고래동화모집' 광고문 취지[5]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든 민족은 각자의 전설, 동화, 동요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이는 그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민족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지닌 것이다. 둘째, 우리도 다른 민족에 뒤지지 않는 고상한 동화와 동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유의하지 않아 파묻혀버렸으므로 지금 우리의 "새민족", 어린 세대들은 일본의 동화와 동요만 아는 형편이니 이대로 둔다면 민족의 내일은 없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속국인 식민지 '조선'의 이름을 세계 각국의 이름 사이에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오로지 과거의 것으로만, 조선만의 것이라는 고유함을 주장함으로써만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의 동화여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새로운 민족 주체가 될 어린 세대가 조선의 동화나 동요 대신 일본의 동화나 동요만 안다는 것은 민족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도 조선 고래 동화의 수집과 정리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다.[6]

그리하여 소파는 "외국동화의 수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우리 동화의 무대의 기초가 될 古來동화의 발굴이 아무 것보다도 難事이다. 이야말로 실로 難 중의 難事이다."[7]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가 옛이

5) 방정환, 「조선고래동화모집」, 《개벽》 제26권, 1922.7.
6) 조은숙, 「동화라는 개척지」, 『어문논집』 제50집, 2004.10, 425~426쪽.

05□□□_□□□□□□15□ 13. 8. 13. □□ 4:31 Page 113

야기를 개작하는 데 혼신을 기울인 일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조선의 옛이야기를 잃지 않기 위함이며, 전래동화 또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음으로써 많은 독자들에게 두루 읽히고 널리 퍼트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 아직 우리에게 동화집 몇 권이나 동화가 잡지에 게재된다 해야 대개 외국동화의 역 뿐이고, 우리 동화로의 창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나 그렇다고 낙심할 것은 없는 것이다. 다른 문학과 같이 동화도 한때의 수입기는 필연으로 있을 것이고 또 처음으로 괭이를 잡은 우리는 아직 창작에 급급하는 일보다도 일면으로는 우리의 고래 동화를 캐어 내고 일면으로는 외국동화를 수입하여 동화의 세상을 넓혀 가고 재료를 풍부하게 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기도 하다.[8)]

소파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코 동화의 창작을 훗날로 미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동화창작에 앞서 하루빨리 고래 동화를 발굴하고, 외국동화 중에서도 좋은 작품은 골라 어린이들에게 바삐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 순서일 것 같다고 말한다.

소파는 마음먹은 대로 고래 동화를 캐어내고, 외국동화의 번안은 물론, 옛이야기를 개작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방정환 작품 중에는 옛이야기나 전래동화를 개작한 것이 대부분이고, 창작동화는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아동문학의 꽃이 피어나려는 과도기에, 필연적 순서일지언정 고래 동화를 찾는 작업이나 외국동화의 수입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아동문학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의 창작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 그가 조금 긴 삶을 영위했더

7) 방정환, 《개벽》 제4권 제1호, 1923.1.
8) 방정환, 위의 책, 23쪽.

05□□□_□□□□□□15□ 13. 8. 13. □□ 4:31 Page 114

라면 훌륭한 창작품을 다수 만나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방정환은 "유아가 모유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아동은 동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모유가 유아의 생명을 기르는 유일한 식물인 것과 똑같이 동화는 아동에게 가장 귀중한 정신적 식물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것은 아동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이 기껏해야 외국동화의 번안물이거나 옛이야기의 재탕에 불과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적 토양에 뿌리를 둔 창작동화의 개척과 수립이 중요한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를 전해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방정환이 가장 치중했던 것이 '고래동화'의 발굴과 그를 통한 창작동화의 개척에 있었음은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다.[9)]

2) 동요 창작 배경

동요의 경우, 소파는 빨리 그 틀을 잡고자 노력한다. 이 역시 황무지나 다름없는 영역이었다. 소파가 도쿄에 체재하던 시기는 일본의 동요황금기였다. 예술아동잡지의 꽃이 동요라는 것을 목격했고, 곡조가 붙음으로써 확산 보급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식민지 교육은 모국어 말살에 역점을 두고 있으니 우리 어린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는 일본말 창가뿐이었다. 소파는 우리말 지키기의 가장 확실한 길이 우리말 동요를 노래로 보급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확신하게 된다. 그러기에 윤극영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협력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간곡하게 설득한 것이다.[10)]

우리는 밤이 으슥한 줄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열심히 피아노를 쳤다.

9) 임성규, 「방정환 아동문학론의 문학 교육적 함의」,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45쪽.
10) 이상금, 앞의 책, 352쪽.

05□□□_□□□□□□15□ 13. 8. 13. □□ 4:31 Page 115

그러나 갑자기 소파는 "왜 우리가 일본 노래를 부르지?"하고 물어왔다. 나는 처음에 멍청했다. 드디어 소파가 나를 찾아온 본론에 접어들고 있었다. "나라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겼는데 왜 노래마저 일본 노래를 부르지?" "그래, 노래가 없다. 그것이 문제야. 우리는 3 · 1운동으로 뭔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 것도 못하고 실패만 했지. 실패만 했어.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야. 그들에게는 우리의 노래도 없다. 윤극영, 어린이에게 지어줄 노래를 지어라. 그들은 10년, 20년이 흐르면 바로 우리나라를 지고 갈 역군이다."[11)]

어린이들에게 노래는 기쁨의 표현이며, 어린이들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당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국의 노래가 없었다. 나라 빼앗긴 설움도 울분이 터지는데, 일본 말을 쓰고 일본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소파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리하여 그는 윤극영에게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지어 달라 부탁하기에 이른다.

윤극영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소파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윤극영의 「반달」, 서덕출의 「봄 편지」 등은 당시 《어린이》에 발표된 대표적 동시인데, 이 작품은 윤극영, 한정동, 정순철의 곡에 힘입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동요가 되었다.

물론 그 당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잘 묘사한 작품이라 하지만, 오히려 민족의 저변에 깔린 슬픔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장으로 승화시킨 것이오, 어린이의 감성을 풍부히 하고, 정신을 더욱 밝고 맑게 하여 희망적 상상력을 발로시킨 민족적 노래라 할 수 있다.[12)]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슬픔을 같이 보고, 같이 울어 주는 문학의 길을 택한 것이다. 몇 편 안 되지만, 방정환의 창작동요 중에서도 「늙은 잠자리」 등은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운율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소파의 동요 중에는 7 · 5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 그 중

11) 윤극영, 「윤극영의 수기」, 《횃불》, 43~44쪽.
12)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서울:개문사, 1983, 18쪽.

05□□□_□□□□□□15□ 13. 8. 13. □□ 4:31 Page 116

대표작 「늙은 잠자리」와 「어머니」를 살펴보기로 하자. 두 작품의 주제와 성격은 전혀 다르다. 「늙은 잠자리」는 애상적 경향이 있는 노래이고, 「어머니」는 희망을 노래하는 동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지은 노래라고 볼 때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수수나무 마나님
좋은 마나님,
오늘 저녁 하루만
재워 주셔요."
"아니 아니, 안 돼요.
무서워서요.
당신 눈이 무서워
못 재웁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늙은 잠자리,
바지랑이 갈퀴에
혼자 앉아서
추운 바람 서러워
한숨짓는데,
감나무 마른잎이
떨어집니다.

—「늙은 잠자리」[13] 전문

재워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한 늙은 잠자리는 시대적 배경으로 말미암

13) 방정환, 「색동회아동문학전집」, 상서각, 1977, 209쪽.

05□□□_□□□□□□15□ 13. 8. 13. □□ 4:31 Page 117

아 일제강점기에서 고통 받는 조선 사람들의 처지를 대신한다. 가난 탓에 집도 없이 떠도는 우리 민족의 한을 늙은 잠자리를 통해 표출한다. 그것은 늙은 잠자리라서 더욱 힘없고 측은하게 느껴진다.

추운 바람 맞으며 한숨짓는 늙은 잠자리의 이미지에서 '서러워'는 작가의 감정이입이 그대로 전달된 시어이다. 나라 잃은 민족을 노래한 「늙은 잠자리」는 씁쓸하다 못해 서글프기까지 하다. 소파의 동요에는 민족적 서러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도 다수 있는데, 그 중 「어머니」를 살펴보자.

어머니 어머니
걱정마셔요.
걱정하면 없는 돈이
생깁니까요.
무쇠같이 튼튼한
나의 주먹이
이 살림을 이대로만
둘 줄 압니까.

어머니 어머니
울지 마셔요.
우신다고 이 설움이
풀릴 겝니까.
붉은 피가 끓는
나의 가슴이
이 설움을 풀지 않고
둘 줄 압니까.

—「어머니」[14)] 전문

05□□□_□□□□□□15□ 13. 8. 13. □□ 4:31 Page 118

1931년 소파가 절명하기 두 달 전, 어린이날 기념호로 출간된《어린이》잡지에 실린 노래이다. 위 동요는 화자인 어린이가 절규에 가까운 뜨거운 호소를 하고 있다. 화자는 무쇠같이 튼튼한 주먹과 붉은 피가 끓는 가슴이 우리 민족에게 있으니 걱정 말고 울지 말라며 어머니를 위로한다. 한 많은 우리민족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화자가 어린이기에 더욱 비통하고 공감이 간다.

방정환 창작동요에 대해 이오덕은, "외적에 짓밟힌 식민지 어린이들의 운명을 스스로의 운명으로 자각한 곳에 그의 동요의 혼이 있었던 것이다. 그 암담하던 시대에 스스로의 모습을 슬픈 노래로 부를 수 있게 한 그의 동요는 얼마나 위안과 기쁨을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주었던 것인가?"[15]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억압당하는 민족의 슬픔과 구박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보급이나 고래 동화의 발굴은, 그가 일본유학에서 경험한 문화적 충격이 본격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3. 시대상과 작품에 드러난 특성

방정환은 교육적 목적에서만 동화가 읽혀져서는 안 된다며, 아동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시대적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기에, 기쁨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작품들을 생산해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서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라는 소파의 말은, 그의 의지를 잘 나타내준다. 그래서

14) 방정환, 위의 책, 221쪽.
15)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 서울:창작과 비평사, 1977, 192쪽.

05□□□_□□□□□□15□ 13. 8. 13. □□ 4:31 Page 119

소파의 아동문학은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의 문학이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쁨은 단순 즐거움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즐거움이다.

서론에서 방정환의 동화작법으로 첫째는 아동이 알도록 쉽게 쓸 것, 둘째는 아동에게 기쁨을 줄 것, 마지막으로 교육적 의미를 고려할 것을 들었다. 재미에 교육적 효용성을 배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세 번째로 들만큼 중시한다고 하는 편이 맞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교육적 주제라 하여 재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재미를 강조했다 하여 교육적 목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한편 그는 동화가 아동을 위한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래의 옛날 이야기와는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전래되어 온 이야기들은 동화의 재료로서 손색이 없지만 동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16]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문학작품으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동화를 개작하게 된 구체적 근거이다. 그렇다면 그의 개작동화 한 편과 번안동화 한 편을 살펴보자.

> "(…) 우리가 하는 사냥은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친부자간이나 형제간에는 아무리 내 몸이 위급하더라도 나 하나만 살 생각은 않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자꾸 달려드니까 나중에는 곰을 잡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디 그런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야! 이제는 알아들었나?"
>
> —「삼부자의 곰 잡기」[17] 일부

1930년대 대표적 동화 '삼부자의 곰 잡기'는 '3부자 곰 잡듯 한다'라는 우리 속담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속담 의미는 '아무리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핏줄의 끈끈한 힘으로 뭉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16) 조은숙, 앞의 책, 429쪽.
17) 방정환, 「소파아동문학1」, 계림, 135쪽.

05□□□_□□□□□□15□ 13. 8. 13. □□ 4:31 Page 120

뜻이다. 실제 이야기 속 인물들 또한 장사 아닌 보통사람이다. 아버지가 곰의 머리를 친 뒤 곰에게 깔리면 맏아들이 잽싸게 달려가 다시 곰을 치고, 곰이 맏아들을 깔고 앉으면 다시 둘째 아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곰을 때려눕힌다. 결국 아무리 거대한 곰도 쉴 새 없이 차례로 달려드는 3부자를 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수길이 삼부자가 잡은 곰으로 점점 부유해지자, 이를 부러워한 칠성이는 맏아들 영길이가 없는 틈을 타서 곰을 때려죽이러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정작 곰의 배 밑에 깔리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슬그머니 빠져나오고야 만다.

소파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직접 개입해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수길이 삼부자처럼 한 몸이 됩시다."라는 말을 남긴다. 속담의 뜻처럼 핏줄의 끈끈한 힘으로 뭉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민족의 현실은 일제 강점기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핏줄을 지닌 우리민족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힘겨운 삶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널리 읽혀졌다.

또한 소파의 작품 중에 널리 알려진 번안동화 「왕자와 제비」[18]가 있다. 「왕자와 제비」에서 '왕자'의 캐릭터는 어린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소파'의 캐릭터와 일면 흡사한 부분이 많다.

> "그렇지만 오늘 하룻밤만 지체되더라도 부디 갖다 주어다고. 불쌍한 그 어린애는 병에 쇠진하여 먹을 것을 찾고 그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울고만 있으니 제발 좀 이 보석을 갖다 주고 오렴."
>
> "그러나 제비야, 저어기 저 산 밑에 젊은 학자가 있는데, 그이가 지금 세상에 퍽 유익한 책을 짓는 중인데 양식거리도 떨어지고, 방에 불도 못 피워서 그만

18) 방정환, 위의 책, 172쪽.

05□□□_□□□□□□15□ 13. 8. 13. □□ 4:31 Page 121

유익한 책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썩 속만 태우고 있단다. 그런 불쌍하고 아까운 일이 어디 있니……. 한 번만 더 심부름을 해주고 가거라."

왕자는 추워지기 전에 남쪽으로 떠나야 하는 제비를 자꾸만 잡는다.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받고 거절할 길이 없어 왕자의 칼자루에 박혀있는 보석을 하나 때어다가 어린애한테 던져다 주고, 금강석으로 만든 눈을 때어다가 학자에게 놓고 나온다.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소파의 정신과 같으며, 퍽 유익한 책을 짓는 학자를 도와주는 왕자의 마음은, 퍽 유익한 책을 지어 어린이에게 읽히고 싶은 소파의 정신과도 유사하다.

"어여쁜 제비야, 이 아래 네거리에 성냥 파는 조그만 계집애가 있는데, 그 조그만 계집애는 성냥을 모두 개천에 빠뜨려서 팔수가 없이 되었단다. 그러나 성냥 판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애 아버지가 몹시 때릴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어린애가 신발도 없고 버선도 없이 이 추운데 맨발로 발발 떨고 섰고, 머리에는 모자 하나 못쓰고 울고 섰으니, 제비야 나의 하나 남은 눈을 마저 빼다가 그 애를 주고 오너라. 그럼 이제는 더 줄 것도 없으니까……."

왕자는 성냥팔이 소녀에게 그가 가진 전부를 희생하여 도와준다. 그리고 왕자는 장님이 된다. 제비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왕자에게, 밥을 달라고 애걸하는 거지들과 손가락을 빨아먹으면서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어린애들 이야기를 해준다. 왕자는 금으로 싼 몸을 벗겨다가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한다.

제비는 이제 싫단 말 아니하고 금 조각을 벗겨다가 하나씩 불쌍한 사람에게 갖다 준다. 그리고 제비는 죽음의 나라로 간다며 왕자의 손에 입을 맞춘다.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떼어주고 죽어가는 왕자 이미지에 어린이를 위해 힘쓰다가 죽어간 소파의 형체가 겹쳐진다. 수많은 외

05□□□_□□□□□□15□ 13. 8. 13. □□ 4:31 Page 122

국작품 중에서 그가 선택한 번안동화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작품에 등장한 주인공 등이 소파가 추구하는 인물상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렇듯 어린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힘겨운 상황에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그의 동화 전반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그의 작품이 「왕자와 제비」처럼 감상적인 요소만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기쁨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작품도 얼마든지 있다. 아주 건강하고 희망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19] 소파 방정환은 권선징악을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그의 문학에 해피엔딩도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굳세고 의지가 매우 강한 어린이가 바로 그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글 속에서는 이런 그의 소망을 담고 있는 글이 많은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받는 괴로움 때문에 때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용기를 잃기도 하지만 끝내는 자기들의 품은 희망을 향해 돌진하는 끈기를 보여주어 남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20]

4. 시대상과 소파의 문학관

소파 방정환이 살던 당시 전통적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랑은 있었으나 존중은 없었다. 어른들은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하였으며, 아동은 어른을 존경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교육되었다.[21] 소파가 어린이에게 시선을 돌린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의 어린이들이 처했던 시대 · 사회적 환경이 참혹하고 비참했다는 것이다. 그가 소년 시절 겪은 고초는 그 혼자만이 겪는 실정

19) 조용찬, 「방정환의 인간관과 교육사상」, 경상대학교, 2004, 32쪽.
20) 원호영,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론 연구」, 강원대학교, 2006, 48쪽.
21) 김자영, 「소파 방정환 아동관의 교육적 함의」,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5, 30쪽.

05□□□_□□□□□□15□ 13. 8. 13. □□ 4:31 Page 123

이 아니고, 이 나라 어린이가 오랜 옛날부터 겪어온 고질화된 슬픈 유산이었다.[22)]

그의 작품에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등장인물이 존재한다. 소파가 가장 활발히 작품을 쓸 무렵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온갖 탄압으로 갖은 고생을 하고 있을 시기이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글을 남긴 그의 작품 속 인물도 평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구조로,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인물일지라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는 작품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정환의 현실인식은 창작동요나 동화 등 작품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바이올린의 대천재」와 「눈물의 작품」이다. 그 중 「바이올린의 대천재」를 우선 살펴보자.

바이올린 천재 안병소 씨는 심한 절뚝발이지만, 아버지의 거룩한 정성과 지지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가 되었다.

> "오늘날까지 조선 소년의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어린 사람의 생명을 밟아왔습니까. 얼마나 어린 생명을 학대하여 왔습니까. 대발명가가 될 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보면 '곰상스럽다'하여 꾸짖고 때리어, 그 재질을 죽였습니다. (…) 미술가가 될 천재가 있으면 '환쟁이가 되려느냐?'고 꾸짖어서 그 천재를 죽였습니다. 더구나, 음악공부가 될 말이겠습니까? (…) 아아! 이리하여 조선의 모든 것은 말랐습니다. 시들었습니다. 조선을 빛내고,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할 천재가 조선의 위대한 천재가 나면 나는 대로 그 부형의 손에 죽고 죽고 하여왔습니다."
>
> —「바이올린의 대천재」[23)] 일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 안병소 씨는, 어찌 보면 조선의 자라

22) 백현진, 「소파 방정환의 아동문학 교육론 연구」, 동아대학교, 2001, 10쪽.
23) 방정환, 「소파방정환의 문학전집4」, 문천사, 1974, 179쪽.

05□□□_□□□□□□15□ 13. 8. 13. □□ 4:31 Page 124

나는 어린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라를 빼앗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부모가 함께 힘쓰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잘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심어주라는 것이다. 없는 사람에게는 '용기'뿐임을 소파는 외치고 또 외치는 바이다.

어린이 독본에 제시된 글 「두 가지 마음성」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일본에 뒤지지 않는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함을 말한다. 기차 속에서 일본 사람이 귤을 먹다가 떨어뜨린 것을 조선 부인과 아기가 나눠먹자, 그들은 "조선 사람은 더럽고 불쌍하다"며 손가락질 한다. 한편, 한 신사가 식은 밥과 반찬을 조선 사람에게 건네자, "이놈아! 내가 갓은 쓰고 구식 사람일망정 너 같은 놈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꾸짖음은 독자에게 통쾌함마저 안겨준다.

> 조선 사람은 남에게 뒤떨어진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조선 사람이라면 아무 하잘 것 없는 아무 값없는 몸뚱이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섭섭하고 이처럼 손해되는 일은 또 없습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결코 못생긴 사람뿐만이 아니요 조선 사람이라고 남에게 뒤떨어지기만 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마는 그와 꼭 같이 우리들의 자랑, 우리 조선의 자랑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24]

또한 방정환은 미담 「눈물의 작품」을 쓰면서, 기막히게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도 가난하기 때문에 산골짜기에서 그냥 쓸쓸히 묻히어 가는 어린이가 조선에는 어찌나 많은지, 생각하면 크게 소리쳐 울어도 다하지 못할 큰 설움이라고 말한다. 「눈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석규 씨는 어릴

24) 방정환, 「편집을 마치고」, 《어린이》, 1929.3.

05□□□_□□□□□□15□ 13. 8. 13. □□ 4:31 Page 125

때 병신이 되어 등을 펴지 못하는 등 꼽추의 가련한 소년이다. 학교에서조차 월사금을 못 내어 쫓겨난 그는, 단돈 10전이 없어서《어린이》잡지마저도 볼 수 없게 된다.

그는 공부보다도 그림 그리기를 제일 즐겨하여 종이에 남은 구석만 있으면 연필 끝을 얻어 그림을 그렸다. 우연히 그 소년을 보게 된 대학생 '주병환'은 배운 일 없이 그림을 그렇게도 잘 그리는 것이 확실히 천재를 가진 사람이라 믿었고, 이렇게 무참히 파묻혀서 쓸쓸히 썩어가는 것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아까워하면서 진정을 다하여 위로의 말을 해준다.

헤어져서도 소년을 잊지 못하고,《어린이》9월호를 사서 내려 보내준다. 잡지에는 뜻밖에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다. 종이와 채색이 없는 소년은 대회를 포기하려 한다. 이를 알고 주병환이 종이 두 장을 또 다시 보내준다. 그러나 채색을 빌리러 동무의 집에 갔다가 동무가 학교에 가고 없으니, 마음이 급해 잠시 가져다 쓴다는 것이 도적질로 오해를 받고 만다.

>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곱지 못하지."하고, 온 동리가 들먹거리도록 '등곱추애가 도적질해 갔다.'고 광고하며 돌아다녔습니다. (…) "너 같은 병신이 살아있으면 무슨 영광을 보겠느냐? 애저녁에 죽어 버리지 왜 살아서 어미 애비까지 도둑 누명을 쓰게 하느냐?"고, 때리는 이도 울음, 맞는 애도 울음, 가슴에 맺힌 설움은 매끝으로 쏟아져서 어린 병신 몸에 휘휘 감겼습니다. (…) 그렇게 안타까운 정성으로 그리어 놓은 그림 두 장은 어머니가 찢으려다가 두꺼워서 찢지 못하고 그냥 건너방 아궁이 속에 넣어 버렸습니다.
>
> —「눈물의 작품」[25] 일부

소년의 누이는 동생이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그린 그림이 전람회에 가

25) 방정환 작, 방운용 엮음,「소파아동문학전집②해녀이야기」, 1965, 94쪽.

05□□□_□□□□□□15□ 13. 8. 13. □□ 4:31 Page 126

기는커녕 무참하게 아궁이 속에 들어간 일이 슬퍼, 무서운 밤을 무릅쓰고 30리 길을 걸어 동생의 그림을 전람회에 보낸다. 그 후 이석규 씨 그림이 전람회에 진열되는 것은 물론, 그 중 한 장은 더욱 잘 그린 그림으로 뽑혀 가작이라는 명예 있는 상을 받게 된다.

한편 소파의 내면세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 민족의 현실적 모습이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존재이나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며, 또한 어린이들의 잠재성을 키워주고자 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26)]

소년의 누나가 아니었다면, 그의 재주는 영원히 빛을 바라지 못했을 수도 있다. 부모의 심한 꾸짖음으로 그는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영영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어른 행동 하나가 어린이들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조선의 어린이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어린이들을 바르게 기르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소파의 일관된 정신이었던 것이다.

>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윽박지를 때마다 뻗쳐 나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 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꿀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27)]

>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제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주어야 그 어린

26) 백현진, 앞의 책, 39쪽.
27) 미상, 「어린이날 선언문」, 1923.5.

05□□□_□□□□□□15□ 13. 8. 13. □□ 4:31 Page 127

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날 것입니다.[28)]

위 글은 '어린이날 선언문'으로 작자미상이지만, 문체로 보아 방정환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윽박지르거나 엄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파는 "아무리 아직 코를 흘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못하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앞사람이다."[29)]며, 아이를 때리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 비판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라고 주장한다. 그래야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린이 독본』에 실린 글에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선생님의 말씀」에서 도둑질하는 학생을 안 내보내면 남은 학생들이 모두 나가겠다고 선생님께 부탁하자, 선생님은 오히려 여덟 명의 학생에게 잘들 돌아가라는 인사를 한다. "그 사람의 행실이 고쳐질 때까지 자네들을 다 내보낼지언정, 그 사람을 내어보내지는 못 하겠다"는 말이다. 나중에 그 말을 듣고, 그 한 사람의 행실은 그 시간부터 고쳐졌다.

「도둑 아닌 도둑」에서도 도둑이 잡혀오자 주인은, "쓸 일이 있어서 달라고 하니까 드렸을 뿐이요. 당신은 나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고맙소' 하고 인사를 하고 가지 않았소?"라며 도둑의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한다. 그 도둑은 감격하여 훗날 주인보다 못하지 않은 좋은 인물이 된다.

두 이야기 모두 잘못한 일에 화를 내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드러움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학생이나, 칼을 든 도둑도 '부드러움의 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고야 만다. 하물며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윽박지르기보다는, 이

28) 방정환, 《동아일보》, 1923.
29) 방정환, 「아동문제강연자료」, 『학생』, 1930.7.

05□□□_□□□□□□15□ 13. 8. 13. □□ 4:31 Page 128

해하고 칭찬으로 대하는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일이라 소파는 굳게 믿은 것이다. 다음 작품에서도 소파는 부모의 꾸짖음과 윽박지름이 얼마나 자녀를 주눅 들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더 이상 부모가 윽박지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쌍한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소파의 말처럼 "뻗쳐나가는 어린이의 기운이 바짝바짝 줄어"든 때다. 부모마저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남에게 꿀리고 뒤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그런 이유로 소파는 어린이를 칭찬으로 대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소파는 이러한 어른들의 임무 외에, 어린이들에게 강조한 것이 동무들 간의 협동과 우정이다. 어른들이 잘 기르고 가르칠지언정, 결국 힘든 시대를 극복하고 헤쳐 나가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또래의 동무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파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동무를 위하여」이다.

며칠 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칠성이네 집에 찾아간 명환이는, 반찬가게 집 가난한 아들인 칠성이가 새로이 큰 반찬가게가 생긴 탓에 장사를 그만 두어야 할 지경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다. 손님이 모두 새 반찬가게로 발을 돌린 까닭에 밥 지어먹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가게를 걷어치우고 집만 팔리면 이사를 간다는 것이다.

집에 가는 길로 명환이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며, 칠성이 형편 이야기를 하고 칠성이네 집 반찬가게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어느 사무원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광고문까지 돌린 명환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

> "동무를 위하여, 불쌍한 동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린 명환이는 피가 끓었습니다. (…) 아저씨가 아는 어른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거기서

05□□□_□□□□□□15□ 13. 8. 13. □□ 4:31 Page 129

만 사라구 그러셔요. 그 위에 새로 난 가게는 아주 나쁜 가게여요. 다른 동네에 가서 내지 못하고, 꼭 그 좁은 동네에 와서 칠성이 집 가게를 엎어먹으려고 일부러 크게 낸 것이 분명해요."

—「동무를 위하여」[30] 일부

명환이의 노력 탓에 큰 가게는 오히려 다른 동네로 옮겨가 버렸고, 칠성이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시대상과 결부지어 생각해보면, 새로 난 가게는 우리민족을 짓밟은 일본으로 남이 잘 살고 있는 곳에 굳이 와서 생계를 끊어버리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명환이와 동네사람들이 협동하여 칠성이를 돕듯, 칠성이와의 우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명환의 의지는 피가 끓는 조선 사람들의 의지와 겹쳐진다.

돈 없고 세력 없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여태까지 내리눌리고 짓밟혀서 아프고 슬픈 생활만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그 쓰라린 생활 속에서도, 또 한층 더 내리 눌리고 학대받으면서 무참하게 짓밟혀만 있어온 참담한 중에 참담한 인생이 우리들 조선의 소년 소녀였습니다.[31]

조선의 학생들에게는 앞에 보이는 광명이 없습니다. (…) 그런 까닭으로 불쌍한 사람 중에도 더욱 불쌍한 사람이 조선의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 불쌍하면 불쌍한 처지에 있을수록 남보다 더한 원기를 갖추어야 아니합니까? 처지와 환경이 험난하면 할수록 그 험난을 능히 이기고 뚫고 나가서 새 세상을 가져올 기운을 길러 가져야 아니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기운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32]

30) 방정환, 「소파아동문학2」, 계림, 213쪽.
31) 방정환, 어린이날, 1926.5.
32) 방정환, 『학생』 제1권 제3호, 1929.5.

05□□□_□□□□□□15□ 13. 8. 13. □□ 4:31 Page 130

소파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의 작품 속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의 번안동화나 개작한 동화나 창작동화의 주인공들 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으며, 그 험난함을 잘 헤쳐 나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려 한 말은 한 결 같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때로는 위험에 빠지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지혜를 짜내어 자기들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내는, 끝내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렇듯 방정환 작품에는 조선현실 인식의 교육적 함의가 결부되어 있다.

5. 결론

> 나는 여러분의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여러분은 집에서도 퍽 쓸쓸스럽고 맛없이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심할 때는 몹시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 어렸을 때의 생활이 그렇듯이 심한 것은 마치 일생의 어린 싹이 차고 아린 서리를 맞는 것입니다. 아무 것보다도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33]

《어린이》 잡지에 실린 소파의 말이다. 가장 사랑하고 귀애하는 어린동무가 쓸쓸하게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소파는 "무엇이든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여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바람이 지금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읽히는 동화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의 동화가 '아이처럼 천사 같은 마음, 아이같이 깨끗한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깨끗한 신성한 것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방정환 선행연구자들은 방정환의 어린이 사랑을 토대로 자라나는 어린

33) 방정환, 「《어린이》 동무들께」, 《어린이》 제2권 제12호, 1924.12, 38쪽.

05□□□_□□□□□□15□ 13. 8. 13. □□ 4:31 Page 131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품분석에 주를 기울였다. 반면, 필자는 반면 필자는 천도교 사상에 입각한 어린이 사랑을 주제로 시대상과 교육적 효용성에 중점을 둔 작품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슬픔을 같이 보고, 같이 울어 주는 문학의 길을 택한다. 당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국의 노래가 없었다. 몇 편 안 되지만, 방정환의 창작동요 중에서도 「늙은 잠자리」 등은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운율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늙은 잠자리」는 시대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에서 고통 받는 조선 사람들의 처지를 대신한다. 소파의 동요에는 민족적 서러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도 다수 있는데, 그 중 「어머니」는 억압당하는 민족의 슬픔과 구박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 보여 진다.

또한 소파는 고래 동화를 캐어내고, 외국동화의 번안은 물론, 옛이야기를 개작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아동문학의 꽃이 피어나려는 과도기에, 필연적 순서일지언정 고래 동화를 찾는 작업이나 외국동화의 수입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아동문학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소파는 교육적 목적에서만 동화가 읽혀져서는 안 된다며, 아동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소파의 아동문학은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의 문학이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쁨은 단순 즐거움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즐거움이다. 방정환의 동화작법으로 첫째는 아동이 알도록 쉽게 쓸 것, 둘째는 아동에게 기쁨을 줄 것, 마지막으로 교육적 의미를 고려할 것을 들 수 있다. 재미에 교육적 효용성을 배재하지 않는 것이다. 소파가 교육적 효용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1930년대 대표적 동화 '삼부자의 곰 잡기'는 '3부자 곰 잡듯 한다'라는 우리 속담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속담의 뜻처럼 핏줄의 끈끈한 힘으로 뭉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며, 우리민족의 현실은 일제 강점기에서

05□□□_□□□□□□15□ 13. 8. 13. □□ 4:31 Page 132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핏줄을 지닌 우리민족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힘겨운 삶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널리 읽혀졌다.

뿐만 아니라, 방정환 작품 중에 널리 알려진 번안동화 「왕자와 제비」에서 '왕자'의 캐릭터는 '소파'의 캐릭터와 일면 흡사한 부분이 많다.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떼어주고 죽어가는 왕자 이미지에 어린이를 위해 힘쓰다가 죽어간 소파의 형체가 겹쳐진다. 소파가 가장 활발히 작품을 쓸 무렵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온갖 탄압으로 갖은 고생을 하고 있을 시기이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글을 남긴 그의 작품 속 인물도 평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눈물의 작품」이다. 방정환은 미담 「눈물의 작품」을 쓰면서, 기막히게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도 가난하기 때문에 산골짜기에서 그냥 쓸쓸히 묻히어 가는 어린이가 조선에는 어찌나 많은지, 생각하면 크게 소리쳐 울어도 다하지 못할 큰 설움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조선의 어린이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어린이들을 바르게 기르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소파의 일관된 정신이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더 이상 부모가 윽박지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쌍한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소파의 말처럼 "뻗쳐나가는 어린이의 기운이 바짝바짝 줄어"든 때다. 소파는 어린이들에게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윽박지르기보다는, 이해하고 칭찬으로 대하는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일이라 말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파의 번안동화나 개작한 동화나 창작동화의 주인공들 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으며, 그 험난함을 잘 헤쳐 나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려 한 말은 한 결 같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것이다. 이렇듯 방정환 작품에는 조선 현실 인식의 교육적 함의가 결부되어 있다.

05□□□_□□□□□□15□ 13. 8. 13. □□ 4:31 Page 133

소파는 어린이 잡지 편집과 글쓰기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느라 코피를 쏟는 날이 허다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었다. 소파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감당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소파는 어린이를 위한 일들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기꺼이 해야 할 일로만 생각했다. 안타까운 것은 살림이 넉넉지도 않았지만, 병을 치료할 시간마저 그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파는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어린이들을 어찌하오?"라며 오직 어린이만을 걱정했다.

>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뒷날에 큰 물결, 대파大波가 되어 출렁일 터이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소파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부인의 손을 잡으며 한 말이다. 소파는 비록 30평생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물결이 되어 출렁이고 있다. 소파의 물결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어린이들 가슴마다 촉촉이 물들 것임이 분명하다.

05□□□_□□□□□□15□ 13. 8. 13. □□ 4:31 Page 134

참고문헌

기본자료

소파방정환의 문학전집 1~8권, 문천사, 1974.

방정환, 「조선고래동화모집」, 《개벽》 제26권, 1922.

방정환, 《개벽》 제4권 제1호, 1923.

방정환, 「편집을 마치고」, 《어린이》, 1929.

방정환, 「아동문제강연자료」, 『학생』, 1930.

방정환, 『학생』 제1권 제3호, 1929.

방정환, 「《어린이》 동무들께」, 《어린이》 제2권 제12호, 1924.

방정환, 「색동회아동문학전집」, 상서각, 1977.

방정환 작, 방운용 엮음, 「소파아동문학전집②해녀이야기」, 1965.

단행본

이상금, 『소파 방정환의 생애 사랑의 선물』, 한림, 2005.

이재철, 「소파의 생애와 문학」, 『방정환 문학전집10-소파선생이야기』, 문음사, 1981.

윤극영, 「윤극영의 수기」, 《횃불》.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서울:개문사, 1983.

장석주, 애송동시 제37편, 《조선일보》, 2008.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 서울:창작과 비평사, 1977.

논문

조은숙, 「동화라는 개척지」, 『어문논집』 제50집, 2004.

임성규, 「방정환 아동문학론의 문학 교육적 함의」,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강난주, 「소파 방정환 동화의 특성 연구」, 건양대학교, 2003.

조용찬, 「방정환의 인간관과 교육사상」, 경상대학교, 2004.

원호영,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론 연구」, 강원대학교, 2006.

김자영, 「소파 방정환 아동관의 교육적 함의」,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5.

백현진, 「소파 방정환의 아동문학 교육론 연구」, 동아대학교, 2001.

05□□□_□□□□□□15□ 13. 8. 13. □□ 4:31 Page 135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of Sofa's literature through the times

Shin, Jung A

Pre-researchers who studied about Bang Jeong-hwan focused on analysis of his literature which gives children pleasure on the basis of Bang Jeong-hwan's love for children. However, I focused on Bang Jeong-hwan's love for children from his children's song and educational efficiency of children's story in my research.

Sopa Bang Jeong-hwan chooses literature way which feeling children's sadness together. At that time, children do not have their motherland song. Bang Jeong-hwan has few creative nursery rhymes, but they have rhythmical elements which makes children easy to sing along such as「Old Dragonfly」.

「Old dragonfly」also represents Joseon-era people who suffer from Japanese Colonization. There are also many literatures which overcome a national sadness in Sofa's children's song. One of them is「Mother」. The「Mother」is seen as sympathy about sadness of oppressed nation and maltreated children.

Sofa is also produced Gorae children's story, not only, of course, adapted a foreign children's story but also adapted an old story. There was no children's literature development if we do not work on finding

05□□□_□□□□□□15□ 13. 8. 13. □□ 4:31 Page 136

a Gorae children's story or import a foreign children's story even if it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Bang Jeong-hwan put children's story needs to give pleasure to children before children's story is read by children only for educational purposes. For this reason, Sofa's children's literature is focused on contents than formalism. However, the meaning of pleasure at this time is not just for pleasure it also teaches the children. Bang Jeong-hwan considered three important things as his children's story writing methods; first of all, makes story easy for children; second, makes children happy; third, consider educational meaning so do not exclude educational usefulness. Sofa also showed these things through his literature.

A representative children's story, Catching a Bear by Father and Sons in 1930s is storied by One of our proverb, Seeming like father and two sons catch a bear. Like a meaning of proverb; everything could be achieved if sticky power of blood band together; if our people stand together, we could do everything although our people live under the pressure of Japanese Colonization. This story was red widely which giving hope and brave to children in hard reality.

Furthermore, the Prince character from one of the Bang Jeong-hwan's famous foreign children's story; 「Prince and Swallow」, is similar to Sofa's character. Sofa's image is overlapped with the Prince who died after he had given everything what he has to disadvantaged children. In addition, every fact about Prince is known to people, so the statue of Prince is remade with all jewels.

When Sofa wrote his literature lively, our country is suffered from Japanese Colonization. It's natural that Bang Jeong-hwan's literature person is never smooth. The most noticeable from his literature is 「Literature of Tears」 that even though the character has obstacle, he

05□□□_□□□□□□15□ 13. 8. 13. □□ 4:31 Page 137

never give up and do his endeavor. Although a child has superb display of talent, he is surrounded by a secluded mountain because of his poor conditions. As Bang Jeong-hwan wrote 「Literature of Tears」, he said about sadness of Joseon's children. Sofa was always thought how to make Joseon's children in great state and grow correctly.

Most of Joseon's children are poor themselves, even though no more their parents bully their children. Like a Sofa's word, The power of extending children is dried up and reduced, it was time that country and word are dispossessed.

Sofa always said that not scold and bully children but understand and treat them with compliments. These make children have confident and brave.

There are lots of poor people in Sofa's story adaptation or creative children's story, and these people are described who excellently pass through their crisis. What Bang Jeong-hwan always wanted to say to children is overcome the difficulties with hope and brave. Like this, Bang Jeong-hwan's literature is connected to educational undertone of Joeson reality recognition.

Bang Jeong-hwan always regarded work for children is as a pleasure and what he has to do. The regrettable thing is Bang Jeong-hwan made a poor living, but even he did not get a time for curing his disease. Bang Jeong-hwan worried only children when he fought with death until the very end.

Even though Sofa passed away at the age of 30, his reputation is still diffused over the eighty years. Sofa's billow will never dry up forever, and saturated to children's mind.

05□□□_□□□□□□15□ 13. 8. 13. □□ 4:31 Page 138

주제어: 천도교(chondogyo), 어린이(child), 동화(children’ s story), 개작(remake), 번안(adapt), 사랑의 선물(A Gift of Love), 기쁨(pleasure), 동요(unrest), 현실인식(awareness of a reality), 희망(hope), 용기(courage), 일제강점기(apanese colonial era), 해학(humor), 어린이독본(childs’ readers), 장애(obstacle), 협동(cooperation), 교육적 효용성(educational utility)

논문 접수일 2013. 05. 03.
논문 심사일 2013. 05. 24.
게재 확정일 2013. 06. 14.